

安東權氏韓山派世系譜

淵源

新羅脫解王九年乙丑（漢明帝永平八年）王夜聞金城西始林有雞鳴聲遲明遣匏視之金色小櫝掛樹白雞鳴其下匏公還報王使取櫝開之有兒在其中姿容奇偉王喜曰豈非天遣我以令胤乎遂收養之及長聰明多智乃名閼智（鄉言小兒之稱）以其出金櫝姓金氏改始林名雞林以爲國號（今慶尚北道慶州）第十二王沾解無子國人立閼智六世孫味鄒爲王（東史高麗名臣金富軾曰閼智生勢漢〃〃生阿道〃〃生首留〃〃生郁甫〃〃生仇道〃〃生味鄒〃〃爲助貴王婿因繼沾解王立承新羅大統歷三十七王）此金氏有國之始（元年辛巳乃季漢後主景耀四年（西紀二六一年））自後朴昔金三姓以齒長相嗣十五基臨王復號新羅至敬順王金溥降高麗傳世五十有六（起漢宣帝五鳳元年甲子（西紀紀元前五七年）盡後唐潞王清泰乙未（西紀九三五年）凡九百九十二年）

本金氏與新羅同姓新羅敬順王三年己丑（西紀九二九年）三月甄萱圍古昌郡（今安東）與金宣平張貞弼倡義佐高麗太祖王建庚寅（西紀九三〇年）正月破萱于瓶山義聲大振麗祖喜曰金幸能炳幾達權可謂權乃賜姓權金之爲權自此始焉（詳見各典故及墓碣文神道碑銘文）

新羅의 脫解王 九年 乙丑年 (漢明宗永平八年 高句麗太祖王十三年 百濟多婁王三十八年 西紀六十五年) 에 王이 밤에 金城의 西쪽 始林에서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음으로 匏公을 보내어 보니 金빛나는 조그마한 꿩이 나무에 걸려 있고 흰닭이 그 밑에서 울거늘 匏公이 돌아와 곱하니 王은 그 꿩을 가지고 오게 하여 열어 본즉 애기가 그 속에 있어 容貌가 大端히 훌륭함으로 王은 기뻐하고 이르기를 이는 하늘에서 나의 아들로 보냄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거두어 길으니 長成함에 聰明하고 智慧가 많음으로 이에 이름을 閼智라 하고 金櫃에서 나왔다 하여 姓은 金氏라 하고 始林을 고치어 鷄林이라 이름하고 因하여 國號를 삼았다. (今慶州) 第十二代 王 沾解가 아들이 없음으로 나라 사람들이 閼智의 六世孫인 味鄒로 王을 삼으니 이는 金氏가 國王이 된 것이 처음이다. (西紀二六一年) 自今以後로 朴氏 昔氏 金氏의 三姓이 年長者로 서로 이어가 十五代 王인 基臨王 때에 다시 國號를 新羅로 하여 敬順王 金溥에 이르러 高麗에 降伏 (西紀九三五年) 하니 代를 傳함이 五十六代이니 總計가 九百九十二年이나 된다.

註新羅의 起源은 中國의 漢나라 宣帝의 五鳳元年 甲子 (西紀元前五七年) 年에 비롯하여 中國의 後唐의 潞王 清泰乙未 (西紀九三五年) 까지다.

安東權氏는 本是 金氏로써 新羅王族과 같은 姓이니 新羅 敬順王 三年 己丑 (西紀九二九年) 年 三月에 甄萱이 古昌郡 (至今の 安東) 을 軍士로 包圍함으로 그 郡內에 같이 있는 金宣平 (新安東 金氏의 始祖) 와 張貞弼 (安東 張氏의 始祖) 과 같이 義學함을 謀議하고 高麗太祖 (王建) 을 도와 庚寅年 (西紀九三〇年) 正月에 甄萱을 瓶山 땅에서 쳐부시니 義롭다는 名聲이 크게 떨침으로 高麗太祖가 기뻐하여 이르기를 金幸은 能히 機微에 밝아 權道에 通達하였으니 可히 權道라 하고 이에 權氏로 姓을 주니 金氏로서 權氏가 됨은 이로부터 始作이니 그 得姓케 된 由來를 좀더 仔細하게 記述하면 始祖 權幸은 本是의 姓은 金氏로 金閼智의 後孫으로 新羅의 宗姓이니 王孫이다. 新羅末期의 敬順王 三年 (西紀九二九年) 인 그때 始祖 太師公께서 古昌 (至今 安東) 을 다스리고 계시었는데 甄萱이 凶惡無道한 마음으로 新羅의 宮中에 侵入하여 온갖 蠻行을 恣行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더니 結局은 新羅王을 弑殺하고 王后와 宮女를 凌辱하는 등 天下에 容納치 못할가 장 凶惡無道한 大逆을 敢行하니 上下의 秩序가 各亂하고 民心이 凶凶하여 天道가 無心하여 一朝一夕에

新羅의 國朝는 되놈의 나라로 變해버렸다. 그나라 甄萱의 軍勢와 蠻行에 어는 個人이나 凡人으로서는 到底히 對抗치 못할 形勢였드니 이때에 古昌郡(至今の安東)을 다스리고 계시는 始祖太師公께서 凶惡無道한 甄萱의 弑逆과 蠻行에 痛憤히 여기시고 忠義의 마음이 激動衡天하나 微弱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悲痛한 마음을 鎮定치 못하시고 원수같은 歲月을 보내시니 高麗太祖王建이 萬古의 逆賊인 甄萱을討伐한다는 檄義文을 新羅의 坊坊曲曲에 드날리며 甄萱을 討伐할 計策을 함으로 이때에 始祖太師公께서 同官인 金宣平 張貞弼과 더불어 議論하여 우리 三人이 다같이 臣子의 道理에 千萬번 죽어도 君國의 怨讎를 報復함이 千萬至當한 일이니 힘이 不足하여 이를 막지 못할 處地임으로 차라리 高麗太祖王建을 도와 하루速히 弑逆의 무리인 甄萱을 殲滅하여 위로는 君國의 怨讎를 갚고 아래로는 百姓들을 이 塗炭속에서 救出하여 天下萬古에 攄攄한 君臣大義를 세우고 國家의 百年大計를 堅固히 하면 이몸이 粉骨粹身되어 죽어도 千萬遺恨이 없겠다. 하고 決心하여 高麗太祖王建을 도와 甄萱의 무리를 討伐할새 瓶山 땅에서 크게 勝利함으로 이에 그 義롭다는 名聲이 크게 떨치었다. 이로써 甄萱이 敗亡하니 때는 新羅敬順王四年(西紀九三〇年)이다.

高麗太祖王建이 크게 기뻐하고 이르되 金幸은 能히 그幾微에 밝아 權道에 通達하였음으로 可謂 權이라는 것이라 하고 이에 姓을 權氏라 주고 벼슬을 高麗三韓壁上三重大匡 亞父功臣太相太師라는 至高極貴하고 至極히 榮譽로운 官爵을 주어 古昌郡을 올리어 安東府로 하고 太師公으로 하여금 功臣의 封地로 하여 그 府에서의 租稅로 生活토록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姓이 權氏로 된 由來이다.

典故

東史綱目(抄錄)

乙丑(新羅脫鮮王九年 高句麗太祖王十三年 百濟多婁王三十八年)春三月 斯盧尼師今以金閼智爲

子改國號曰雞林

新羅王得小兒於金城西始林（在今慶州府南四里）見其姿容奇偉以爲天祚胤嗣乃收養之名闕智方言小兒之稱謂時有金櫝白雞之異改始林爲雞林因以爲國號賜闕智姓曰金氏新羅金氏始此或云新羅自謂少昊金天氏之後而金首露亦其同姓云闕智及長聰明多智略至其七世孫味鄒始有國

乙丑年春三月에 斯盧의 尼師今이 金闕智를 아들로 삼고 國號를 고쳐 鷄林이라 하였다.

新羅王이 金城 西쪽 始林（지금 慶州부 남쪽 四里에 있다）에서 어린 아이를 얻었는데 그 모습이 奇偉한 것을 보고 하늘이 내린 아들이라 하고 거두어 길러 闕智라 이름하니 闕智는 方言에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金姓자에 韓답을 담아 하늘에서 내린 異跡이 있었으므로 始林을 고쳐 鷄林이라 하고 因하여 國號로 삼았으며 闕智에게는 金氏라는 姓을 내리니 新羅金氏가 여기에서 始作된 것이다. 或者는 말하기를 新羅가 스스로 이르기를 少昊金天氏의 後孫이며 金首露도 또한 같은 姓이다 한다 하였다. 闕智가 자라면서 忠明하고 지력이 많더니 그의 七世孫 味鄒에 이르러 비로소 나라를 所有하였다.

石州公題家牒詩

公은 二十二世孫으로 諱는 驪이요 字는 汝章이며 號는 石洲다. 文忠公陽村先生의 六代孫이요 習齋公의 第五胤으로 光海君의 昏朝때 宮柳詩로 因하여 被禍하여 光海君이 鞠刑하여 慶源으로 귀양가실제 겨우 東大門을 지나서 이곳 村家에서 別世하시었다. 仁祖反正後 持平에 贈職되시었다.

羅王聖骨是吾先 西始雞鳴事渺然 錫邑今方三七代 開邦久已一千年 翰林
詞藻風聲遠 僉議尊榮福祿綿 小子怛然憂失墜 錄爲家牒要流傳



新羅의 王系인 분이 우리 先祖이시니 始林에서 닭의 울음은 渺然한 일이네. 고을을 준것은 이제 바야흐로 二十余代나 되었고 麗朝를 創業케 한것은 이미 一千年의 옛이로세. 翰林文章의 들리는 名聲은 遠大하고 僉議政丞의 尊榮과 福祿의 慶事가 連하였네. 小子는 깜짝놀라서 떨어질까 근심하여 家牒을 만들어 넌 리 퍼지어 전케고저 한다.

成化譜序

權本新羅宗姓金氏也羅季有金公幸者守古昌郡時甄萱入新羅弑王辱妃高麗太祖赴救與萱相持幸謀於衆曰萱義不共戴天盍歸王公以雪痛憤遂迎降麗祖曰幸能炳幾達權乃賜姓權授太師以郡爲食邑陞爲安東府幸生仁幸官至郎中仁幸生冊冊自求爲本邑吏權氏自冊爲吏以還中微不振者七世至守平復興子孫趾美逮文正始大顯隆守洪之後文担亦復貴顯權氏遂分爲二大族今衣冠簪履布列朝著餘數千指皆二族支派也居正外祖陽村權文忠公近亦文正曾孫舅氏權文景公躋(號止齋陽村第二子)始修家譜小牒子吉昌權翼平公擘(號所閒堂)承先志廣採博訪大加增潤亦未就緒居正與尚州判官朴元昌大邱府使崔灝元又加搜問補其闕遺證其訛僞釐爲圖譜二卷其爲譜詳於文正文担以下而略其上者錄其所可知而缺其所不可知將以傳信將來耳譜旣成倩慶尚監司尹公壕刊于安東府予惟古者有宗法序昭穆別支庶子孫雖百世可考自宗法廢而譜牒興凡爲譜必推本其所自出而詳錄其所由分明支派別親疎

猶足以篤恩誼而正倫理者矣隋唐以上置圖譜局有郎吏以掌撰述婚姻選舉皆關譜牒今中朝上自公卿大夫下至孤門單族亦莫不有譜上自唐虞三代始封之祖而祖之雖高辛神農顓頊之遠皆一一接續而序次其譜系豈不以圖牒相傳得有所考歟自古無宗法又無譜牒雖巨家大族絕無家乘纔傳數世有不紀高曾祖考名號者子孫浸以乖隔或不識總功之親視同路人何待服盡親盡而疏且遠哉如是而欲興孝弟成禮讓豈不難乎此吾文景翼平所以惓惓於著譜而居正之勉卒其志者也權氏自太師始封今六百年子孫蕃衍詩書之澤悠久未艾蓋根深者末茂源遠者流長理之必然也嗚呼自名宗華胄不爲不多而當其珪組蟬聯門地煥赫孰非可慕而可尊者乎曾未數傳傾覆剿絕何哉由其先世封植未固而子孫遽以驕奢失之也權氏世以清白傳家忠孝爲心爲子孫者可不念祖宗積之之勤而思所以繼之之道乎記曰人道親親也親親故尊祖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若能始於親親推及九族則所以厚本敦末者豈有窮哉詩曰無念爾祖聿修厥德吾更爲權氏子孫勗之

成化紀元之十二年蒼龍丙申(西紀一四七六年)正月 日純誠明亮佐理功崇政大
行議政府左叅贊兼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達城君徐居正剛中叙

(自求爲本邑吏以下丙辰譜添入七行而今從舊譜序文證訛釐正)

權氏는 본래 新羅의 王系인 金氏이었다. 新羅의 末期에 金公幸이라는 분이 古昌郡(至今의 安東)을 지



키고 있을때 甄萱이 新羅에 侵入하여 王(景哀王)을 죽이고 王妣를 능욕함으로 高麗太祖(王建)이 달려와 救援하니 金幸이 여러 사람과 謀議하여 이르되萱은 義理上이 하늘 아래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이니 高麗太祖에게 歸順하여 이 痛憤함을 씻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降伏하니 高麗太祖가 말하되 金幸은 能히 그 機微에 밝아 權道에 能通하였다 하고 이내 權氏로 姓을 주고 太師의 벼슬을 시켜 古昌君을 封地(그土地에서 稅金을 받아 生活케 하는 制度)하고 安東府로 昇格하였다. 幸은 仁幸을 出生하니 벼슬은 郎中이요 仁幸은 冊을 出生하니 冊은 本邑의 吏房을 自請하였으니 權氏는 冊으로부터 吏房이 됨으로써 還中하니 미친하여 떨치지 못하니 七世에 이르러 守平이 다시 일어나 子孫이 조금씩 나아져 菊齋文正公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현저하게 隆盛하였고 守洪(僕射公)의 後孫 文坦公(諱漢功 高麗忠定朝 都僉議政丞)이 또한 다시 貴하고 顯達하였으니 權氏는 드디어 두 大族으로 나누어 졌다. 至今은 混淆하고 높이 벼슬한 분이 朝廷에 擧쳐있어 著名한 분만도 그 數가 千손가락도 남으니 이는 다 두 일가의 갈라진 派이다. 居正의 外祖父는 陽村 權文忠公 諱近이니 또한 文正公의 曾孫이요 外叔 權文景公(陽村公의 第二胤 諱暉 號止齋)께서 비로소 家譜로 小牒을 엮으시고 아들 吉昌郡 翼平公 曄(號所閑堂世祖 朝靖難勳一等至左政承)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널리 찾고 물어 많이 보태고 다듬어서 더하였으나 또한 事業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居正이 尙州判官 朴元昌과 大邱府使 崔顥元과 더불어 또 찾고 물어 보태어 그 빠짐을 補充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밝히어 二卷의 圖譜로 바르게 하였으니 그 族譜됨은 文正文坦以下는 詳細하나 그 위는 簡略함은 아는 바는 記錄하고 아지 못하는 것은 결하니 곧 將來에 信實함을 傳코져 함이다. 族譜가 이미 完成됨으로 慶尙監司 尹公 壕(坡平人 號素山 諱平靖官至相臣 成宗國舅)에게 付托하여 安東府에서 刊行되었다. 나는 오직 옛적에 宗法이 있어 昭穆의 차례와 支庶의 區別에 子孫이 비록 百世라도 잘 考證하였으나 宗法이 廢함으로 부터 族譜가 興行하니 대범 族譜를 함은 반드시 그 根本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가리고 자세히 다루어진 由來를 記錄하여 支派를 分明히 하고 親疎를 區別함이 오히려 足히 恩誼를 敦篤히 하고 倫理를 바르게 함이다. 中國의 隋나라와 唐나라 以前에는 圖譜局을 두어 郎吏가 있어 婚姻과 사람을 천거한 事項을 다 譜牒에 關聯시켜 記錄하여 編纂함을 맞게 하였다. 至今 中國에서는 위로는 公卿大夫로부터 아래에

는孤獨한門中과單純한民族에 이르기까지 또한族譜上에唐虞三代로부터 처음封한祖上이 있지 아니
 함이 없으니祖上이 비록高辛神農顓頊이遠代라도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어 그族譜의系統을 차례로
 세웠으니 어찌族譜로써相傳하여考證이 되어 얻은바가 아니겠는가. 옛부터宗法도 없고族譜가 없다면
 비록巨家大族이라도家譜가 전혀 없고 겨우두어代만傳하고高曾祖考의名과號를記錄함이 없다면子
 孫이漸漸멸어지면或總功服(喪服의區別이니總는三月服이고功은大功과小功이 있어大功服은九月이고
 小功服은五月이다)의至親사이라도알지 못하여行人과 같이 불것이니 어찌服이 다 되고親屬이 다 됨을
 期待리며疎遠케 하겠는가 이와같은孝道와友愛를 하고禮儀를 지키고 겸손하고자 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이는나의文景公翼平이精誠들여族譜를 만든 까닭이니居正의 힘쓴것은마침내 그 뜻한 바
 이다 權氏는太師公의封됨을 비롯하여 이제六百余年이니子孫이 많이 퍼지고文章의惠澤이 오래도록
 그치지 아니하니대개뿌리가 깊은者は 그 끝이茂盛하고 그根源이 먼者は 물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當
 然한理致이다. 슬프다.自古로名門의宗族과貴族의子孫이 많지마는 그 훌륭한人物이連이어 계속하
 고門閥이 빛남을 누아니思慕하고尊敬하겠는가 일찌기數代를傳치 못하고 뒤집히고絶滅됨은 무엇인
 고 그先代의封함이 굳지 못하고子孫은 급하게 교만하고 사치하여 그르침이니 權氏는代代로清白으로
 家門을傳하고忠孝로根本을 삼으니子孫된者가 바르게祖宗의勤苦를 모음을念慮치 않고서야 그道
 義를繼承할바를生覺하겠는가. 記에 이르되親族을親愛함으로祖先을尊重하고祖先을尊重하는故로
 宗族을恭敬하고宗族을恭敬하는故로族親이 모으나니萬一能히親族을親愛함을 비롯하여 이루어 九
 族(위로는高祖부터 아래로는高孫까지自身을包含하여九代의直系親과房系親의總稱임)에 미치면 根本을
 厚히하고 끝을敦厚히하면 어찌窮함이 있을까. 詩傳에 이르되네祖上에게念慮되게함이 없게하여 그
 德을思慕하여 바르게 하라 하였으니 내 다시 權氏의子孫을爲하여 힘쓰노라.

成化譜跋文

自高麗太祖至于我朝權幸子孫蕃衍其爲顯達者難以枚舉其未顯者不知有幾今達

城徐相居正以權文忠公外孫因文景權相躋翼平權相肇兩公所撰族譜更加櫟括編爲三帙使權氏宗支會于一譜雖微者昭然可稽倩慶尚監司尹相壕刊行尹相幸之裔二相適外玄孫也亦樂爲之從使刊于安東府命鎮監督不日功訖徐相尊祖敬宗之意益以著矣

歲成化十二年丙申三月 日中訓大夫行安東大都護府教授崔鎮謹跋

高麗太祖로 부터 李朝에 이르기까지 權幸의 子孫은 늘어 퍼져 그 立身出世한 者를 낱날이 들기 어려우니 그 나타나지 않은者 몇이나 있는지 알지 못하겠드라。 達城의 徐政丞居正은 權文忠公의 外孫으로 因하여 文景公 權政丞躋와 아들 翼平公 權政丞肇의 두公께서 지으신 族譜에 다시 바로잡고 보태어 三卷으로編輯하여 權氏의 宗支를 하나의 族譜에 모으니 비록 작으나 分明하여 可히 詳考가 될것이다。 慶尙監司인 尹政承壕에게 刊行할 것을 付托하니 尹政丞은 幸의 後孫인 두 政丞의 마침 外玄孫이니 또한 기쁘게 여기고 安東府에서 刊行하니 鎮에게 그 監督을 命함으로 몇칠 못되어 끝마치니 徐政丞의 祖上을 尊崇하고 宗族을 恭敬하는 生覺이 더욱 나타나니라。

安東權氏韓山派世系譜

松禾公第一胤通德郎公諱脩之胤護軍公諱謙系 第一回

二十四世

子謙

字益甫宣祖癸未
(一五八三)九
月八日生龍驤衛
護軍壽僉樞以庭
訓不仕顯宗丁未
(一六六七)七
月四日卒享年八
十五

配淑夫人洪州李氏
忌正月十日墓舒
川郡華陽面楸洞
里沙城洞右麓子
坐

配淑夫人韓山李氏
父武榮福己丑(一
五八九)生癸
卯(一六六三)
九月二十八日卒
享年七十五墓舒
川郡華陽面完浦
里岐浦東麓西坐
乾墓合窆

女李俊明

女李 寇

子微昌

二十五世

子悌

字子順光海丙辰
(一六一六)生
忠義衛以孝友學
行聞于世肅宗癸
酉(一六九三)
十月二十六日卒
享年七十八

配光山金氏丙寅(一
六二六)生卒
未詳沙城洞乾坐
無育

配和順崔氏父象玄
生卒未詳墓陽城
佳川驛村育一女

子楊

字子吉光海戊午
(一六一八)生
生員廣興倉奉事
因辛壬士禍遂隱
不仕忌正月九日
配驪興李氏父別坐
晦叔己未(一六
一九)生忌三月
二十三日墓扶余
郡忠化面可化里

二十六世

子雷

字雲卿癸巳生戊
午卒
配全州李氏癸巳生
丁丑九月四日卒
父悅

配昌寧成氏父昌漢
丁未二月二十八
日卒墓元林川忠
化面龍洞乾坐合
祔

子尚

子李 誼

女閔挺植

子尚

子援

字君美生卒未詳
配海州崔氏父縣監
世慶墓元林川忠
化面龍洞亥坐

女具如萬

子尚

奉事子鼎麟

驪興人

子系

生父需字仲仁肅
宗戊寅(一六九
八)生忠義衛孝
學有著英祖庚辰
(一七六〇)六
月十四日卒

子袂

女朴宗幹

女李 渠

女李 渠

女李 渠

子系

子趾訥

字士弘通德郎墓
忠化龍洞案山
配杞溪俞氏父牧使
彦攀墓乾墓同局
亥坐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字伯敏英祖壬辰
(一七七二)生
正祖丙辰(一七
九六)七月八日
卒贈通訓大夫掌
禮院掌禮墓龍洞
壬坐

女成浚

女成浚

女成浚

女成浚

女成浚

子系

子勝圭

字士弘通德郎墓
忠化龍洞案山
配杞溪俞氏父牧使
彦攀墓乾墓同局
亥坐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配光山金氏

子左圭

子鳳圭

子李邦柱

女李炳耆

主事子舜寧